

컴퓨터·경제 실용서가 잘 팔린다

PC사용자, 비즈니스맨 독자층이 폭넓은 시장 형성

지금까지 출판의 주류와는 거리가 있다는 컴퓨터서적, 경제서적, 외국어서적 출판이 짝잘한 재미를 볼 수 있는 가능성 많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에 출판가에서는 문학분야의 책을 출판하면 손해라는 극단적인 분석까지 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물론 어느 정도 과장이 섞인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베스트셀러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현상(《출판저널》 172호 4쪽 참조)에 대해 “컴퓨터서적이나 경제·경제서, 외국어서적이 각개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상반기 베스트셀러에 상당수 진입

문학물 이외의 실용서들이 독자들의 손길을 유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후 시선을 끌 만한 문학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부의 세계화 선언 이후 그 실천 방안을 책에서 찾으려는 독자가 늘고 있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컴퓨터서적의 인기는 이제 컴퓨터가 전문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세태까지 쉽게 해준다. 올해 상반기 종로서적의 베스트셀러 목록 100위에는 《컴퓨터 길라잡이》(임채성 외, 정보문화사), 《HiTEL 길라잡이》(한국PC통신 편집부), 《저는 컴퓨터를 하나도 모르는데요》(이일경 외, 키출판사), 《메모리 관리-10분 가이드》(이종운, 인포북), 《한글 윈도우 3.1》(정중오 외, 정보문화사),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전유성, 나경문화) 등의 컴퓨터 서적들이 50위 안에 포진하고 있다.

컴퓨터 서적이 서점의 고정 코너로 자리잡은 지 오래고, 판매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컴퓨터 전문출판사의 한 편집부 직원은 “과거에는 딱딱한 매뉴얼을 그대로 옮겨놓았던 것에 비해 지금은 유머까지 가미해 저자가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품었던 질문들을 풀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쉽도록 꾸며놓은 안내서들에 독자들의 손길이 잦다. 이 점이 컴퓨터 서적의 시장을 더욱 넓혀 놓는 것 같다”고 분석한다.

이 직원의 말처럼 시중에 나와 있는 컴퓨터 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은

컴퓨터서적이 서점의 고정 코너로 자리잡은지 오래고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한다. 만연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에 민감한 비즈니스맨들이 경제 경영 실용서들을 찾는 발길도 부쩍 잦아졌다. 몇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외국어 열풍으로 판매부수가 늘어났다. 이같은 실용서 시장의 확산은 당분간 이어지리라는 전망이다.

컴퓨터를 구입하고도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는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가이드 북이 되고 있다. 또한 《간단한 PC 조립법》(정진생, 키출판사)처럼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에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버전업에 따라 새로 찾는 매뉴얼식 컴퓨터서적을 비롯, 컴퓨터에 겁을 먹고 있는 초보자들을 겨냥한 책까지 두루 잘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컴퓨터 서적 중에서도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에 대한 책이 급부상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HiTEL 길라잡이》가 대표적인데, 이외에도 《저는 컴퓨터를 하나도 모르는데요》(이일경 외, 키출판사), 《인터넷의 모든 것》(조원희, 인포북), 《아하! 인터넷》(홍영진, 임진사), 《인터넷어 별건가요》(존 레바인 외, 흥익미디어), 《PC통신 인터넷》(황인수, 정보문화사) 등이 그런 책이다. 이처럼 컴퓨터 통신관련서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경희대 신방과 강태완 교수는 정보사회로 변화되는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분석한다.

“이제 인터넷을 모르면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 현대사회는 돈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쥐고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에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제대로 취합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경제에 민감한 샐러리맨 독자층도 두터워

한편 경제 경영서들도 조용하게 많이 팔리는 책들로 손꼽히고 있다. 경제경영서 시장을 분석할 때 특이한 것은 변두리 서점보다



독자층이 늘고 있는 컴퓨터서적 코너.

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서점에서 더 많이 팔린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은 경제에 민감한 샐러리맨들이 주 독자층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점심시간이나 업무의 막간을 이용해 책을 사러오는 ‘넥타이 부대’가 많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영업사원인 안재훈씨(33)도 그런 독자 중의 한 사람이다.

“불황이라는 말이 경제계에 만연해 있다. 하지만 영업을 하려면 왜 불황인지를 알아야 한다. 경제경영서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나는 최신간의 책을 고르는 편이다. 그래야 최근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을지서적 홍보부 황선옥씨도 “7개월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 중 경제서가 가장 많아 90여종에 이른다”면서 책의 목록이 한달 사이에 바뀌는 등 다른 분야의 책보다 회전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말한다.

경제서 중에서 가장 민감한 변화를 보이는 책들은 증권관계서다. 주가가 급등하면 급등하는 대로, 또 폭락하면 폭락하는 대로 증권관련서는 팔린다. 채테크 개념이 이 사회에 자리잡으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리노트》(진대현, 더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토드 부크홀츠, 김영사), 《혼자서 떠나는 회계여행》(이형래 외, 미래경영연구) 등 원론적인 경제학 관련서나 경영은 회사생활에 직접 필요한 이 분야 관련서들이 ‘잘 나가는 책’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몇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외국어 교육 열풍도 서점에서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되어 있다. 이전까지 수험서로 인식되던

외국어 서적은 이제 독특한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종수나 판매부수가 많다. 을지서적에서도 지난해부터 소설, 비소설, 시, 컴퓨터 등과 함께 외국어 베스트셀러를 따로 집계, 발표하고 있을 만큼 이 시장은 자리를 굳혔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컴퓨터, 경제 경영, 외국어의 출판 시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출판인은 말한다. 가벼운 출판물이 홍수를 이루는터에 ‘실용서’의 옷을 입고 출판을 더 가볍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지적이다.

“이 분야의 전문필자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가벼운 책들이 진지한 책을 밀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한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이성수)